

# 하늘사랑

2017. February 2

[www.kma.go.kr](http://www.kma.go.kr) Vol. 428

정책 클로즈업

2017 기상정책, 달라지는 기상서비스

열린마당

기상청을 시원하게 대변하다!

날씨+스토리

날씨가 범칙에 영향을 끼친다?







기상청

# NEWSTAY

새로운 주거문화의 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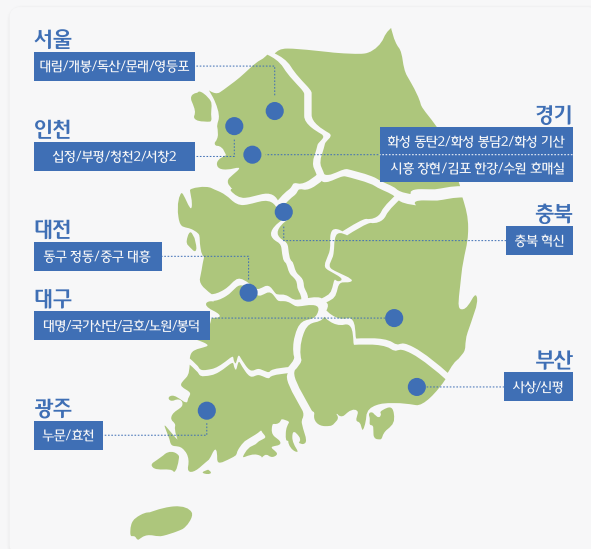
“안심하고 오래 살 수 있는 우리집!”

## 뉴스테이의 장점 4가지

-  8년간 안정적인 거주 가능
-  임대료 상승률 연 5% 이내로 제한
-  민간 분양 주택 수준의 **품격** 있는 주택
-  맞춤형 주거서비스 제공
  - 아이돌봄 서비스
  - 가사도우미 서비스
  - 카 셰어링 서비스
  - 하자보수 서비스



“2017년까지 전국에 총 15만호의 뉴스테이가 당신을 찾아갑니다”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차격제한 없이 신청 가능한 뉴스테이!”

관련 정보

- 마이홈 포털 | [www.myhome.go.kr](http://www.myhome.go.kr)
- 뉴스테이 홈페이지 | [www.molit.go.kr/newstay](http://www.molit.go.kr/newstay)
- 뉴스테이 블로그 | [blog.naver.com/newstay](http://blog.naver.com/newstay)
- 아파트 투유 | <http://apt2you.com>
- 뉴스테이 추진단 | 044-201-4472, 4479



# 하늘사랑

2017 February Vol. 428

2017년 2월호(통권 428호)

주소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16길 61 전화 (02)2181-0360  
팩스 (02)836-5472 E-mail kmanews@korea.kr 발행처 기상청  
발행일자 2017년 2월 10일 발간등록번호 11-1360000-000079-06  
발행인 고윤화 편집장 정해정 편집기획 대변인실 최의수 조아라  
디자인/인쇄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 KMA Special Issue

### 정책 클로즈업

2017 기상정책, 달라지는 기상서비스 · 02

영향예보 1년,

돌아보는 2016년과 바라보는 2017년! · 04

### 포커스

모바일 기상관측차량을 아시나요? · 06

## KMA About

### 열린마당

나는 정말 행복합니다! · 08

기상청을 시원하게 대변하다! · 10

좋아서 하는 밴드 동호회 '스페이스 사운드' · 12

세상을 바꾸는 작은 기적, '땅울림' · 14

소목공예 예찬! · 16

사람 가는 곳에 길을 만듭니다 · 18

## KMA 날씨 +

날씨 + Story 날씨가 범죄에 영향을 끼친다? · 20

날씨 + Book 손석희가 말하는 법 · 22

날씨 + Culture 눈에 관한 두 편의 소설과 두 편의 영화 · 24

날씨 + 연애 계절감:겨울이 머무는 속도 · 26

## KMA Report

포토 브리핑 · 28

독자 마당 · 30

포토 에세이 · 32



# 2 February



07



13



14



기상청에서 발행한 「하늘사랑」 저작물은 '공공누리'의 출처표시·상업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상업적인 목적이나 변형하여 이용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또한 사진, 일러스트, 만화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공공누리'는 공공기관의 저작물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입니다. [www.kogil.or.kr](http://www.kogil.or.kr)

# 2017 기상정책, 달라지는 기상서비스

기상청은 2017년 정책목표를 '전문역량과 미래과학기술의 접목을 통한 서비스 향상'으로 정하고 정책목표를 추진하기 위한 2017년 업무계획을 세웠습니다. 올해는 전문역량 향상을 통한 예보정확도 향상, 기상과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미래과학기술을 접목하여 미래 기상 업무 환경 기반 마련을 중심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인포그래픽을 통해 2017년 국민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기상청의 정책을 소개합니다.



## 미래과학기술을 활용하여 기상서비스를 향상시키겠습니다.



### 첨단 미래기술 활용으로 예보기술 혁신

- 딥러닝 등 인공지능, 빅데이터 → 수치모델 개선



### 기상분석 강화 및 기상인력 양성

- 기상기후인재개발원, 특기 기상 연구센터\* 운영
- \*폭염, 장마 / 대학·연구기관 2개소



### 영향예보 시험서비스 실시

- 대설, 호우, 강풍 분야



### IT 기술을 접목한 첨단 기상관측망 시범구축

- 사물인터넷(IoT), 자동차OBD 및 강우센서 활용



### 한국형 수치예보모델 실증 착수

- 원천기술 확보(13), 시범모델 개발(16)

## 지진조기경보를 개선하고 전달체계를 다양화하겠습니다.



### 지진 조기경보 개선

- 지진 조기경보 발표 15~25초 내외(관측 후)
- 긴급재난문자 2분 이내 전달



### 지진관측망 조기 확충

- 관측망 조밀도 (16)22km → (18)18km



### 대국민 지진경보 전달체계 다양화



미래과학기술을 적극 활용하고  
전문역량을 강화하여  
기상서비스를 비약적으로  
향상시키겠습니다.



융합서비스를 강화하여 국민의 기대치에 맞는 **기상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항로별 해양 기상정보 제공**  
· 국내외 정기 여객선(48개 노선) 대상



**세분화된 폭염지수 인터넷 서비스 실시**  
· 대상· 환경별 5단계 지수 제공



**실시간 도로위험기상정보 시범서비스**  
· 영동고속도로 강원전역



**기상·기후 자료 제공 확대**  
· 실시간 오픈 API(7종 → 9종)



**중기예보 변동성 정보 제공**  
· +10일 기온오차범위, 강수확률



**이상고온·저온 등 이상기후 발생가능성 정보제공**

# 영향예보 1년, 돌아보는 2016년과 바라보는 2017년!

영향예보팀



날씨 현상에 대한 예보를 넘어, 날씨로 인한 영향까지 예측하여 전달하는 영향예보.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켜나가기 위해 기상청은 2016년을 '영향예보 원년'으로 삼고 씬 없이 달려왔다. '영향예보로의 전환을 통한 기상재해 리스크 경감'이라는 정책목표 아래 추진된 영향예보는 어떤 성과를 달성하였으며,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은 무엇일까?

## 영향예보 추진을 위한 기반 마련

영향예보팀은 2016년 기상청 정책목표 『영향예보로의 전환을 통한 기상재해 리스크 경감』 추진을 위해 기상청장 직속 TF팀으로 2016년 1월 4일 출범하였고, 7월에는 예보정책과 소속의 영향예보팀으로 개편되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016년에는 영향예보가 나아가갈 길을 모색하기 위해 기상청 여러 부서 직원들과 타 부처 방재 전문가 및 지자체 실무자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또 함께 고민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2016년 5월, 「영향예보 추진 기본계획(2016~2020년)」을 수립하면서 영향예보를 향한 기틀을 마련하였다. 그다음 단계로 지자체 방재 담당자들에게 영향정보를 제공하면서 영향예보의 가능성과 한계를 진단하고 상세한 추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지방청과 함께 시범서비스를 시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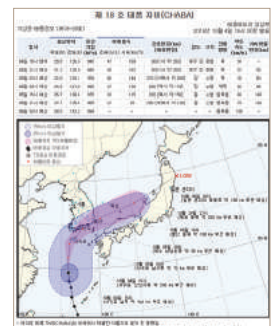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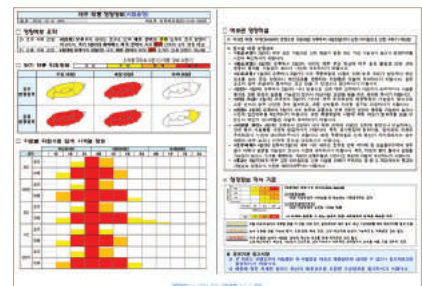
## 본청 및 지방청에서의 시범서비스 개요와 성과

영향예보 시범서비스는 본청 영향예보팀과 제주청이 합동으로 추진한 '제주특화 태풍 영향예보 시범서비스'와 각 지방청·지청의 '지역별 맞춤형 영향예보 시범서비스'로 나눠 추진하였다. 지역별로 나타나는 위험기상의 빈도와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지방청에서는 예보권역별로 기상재해를 일으키는 주요 위험기상 현상을 대상으로 '지역별 맞춤형 영향예보 시범서비스'를 준비하였다.

'제주특화 태풍 영향예보 시범서비스'는 2016년 9월, 제12호 태풍 남테운을 시작으로 한반도에 영향을 준 므란티, 말라카스, 차바에 대해 총 24회의 영향예보를 생산하여 제주도 방재 담당자들에게 제공하였다. 지자체에서는 이를 참고하여 방재계획을 수립하고 방재업무에 일부 활용하였다.

한편 2016년도에 찾아왔던 기록적인 폭염에 발맞춰 시행되었던 광주청과 대구지청의 폭염 영향예보는 지역 방재 담당자들에게 매우 큰 도움을 주었다. 지자체에서는 폭염 영향예보를 무더위쉼터 운영, 도로살수차 운행, 폭염 대비 대국민 행동요령 홍보활동에 대한 근거자료로 활용하였다. 그 결과 영향예보가 시행된 지역들에서는 온열질환자 발생 수가 다른 지역에 비해 크게 억제되어, 영향예보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가 되었다.

(2016. 10. 4. 16시) 태풍 정보와 제주특화 태풍 영향예보







## 2017년도 영향예보의 계획

2017년에는 영향예보 시범서비스가 보다 강화된다. 본청에서는 대설, 호우, 강풍을 추가하여 태풍과 함께 총 4개 요소에 대한 시범서비스를 시행할 계획이다. 관련 기술개발에도 박차를 가하여 보다 신뢰도 높은 영향예보를 생산할 예정이고, 홍보 및 설명 자료를 만들어 지자체 방재 담당자들과 더욱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견고한 협업체계를 구축해나갈 것이다. 또한, 영향예보 이해 확산을 위해 가상현실 기술을 기반으로 기상재해와 영향예보를 가시화하는 데도 노력할 예정이다.

한편 영국의 NHP(자연재해 파트너십, Natural Hazards Partnership)와 같은 범부처 공동의 자연재해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다부처 공동의 한국형 영향예보 기술개발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여러 부처의 강점과 역량을 결합하여 국가적 차원의 영향예보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관련하여 이미 몇몇 부처들과는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지방청·지청에서의 지역 맞춤형 영향예보 시범서비스 역시 더욱 강화된다. 작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영향예보의 요소나 대상을 확대하거나, 생산 기술의 고도화 등을 통해 방재업무에 더욱 도움이 되는 영향예보를 생산할 계획이다.

## 영향예보가 나아가야 할 방향

영향예보가 어느덧 1주년을 맞이하였다. '예보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는 다짐과 함께 시작한 영향예보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영향예보 사업의 첫 번째 목표는 기상특보 체계의 개선이다. 기상현상의 강도만 고려하여 발표되던 특보체계를 영향 기반의 특보체계로 전환시켜, 기상재해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켜내는 것이 영향예보, 더 나아가 기상청의 미래가 될 것이다.☞

주체	구분	예보 지역	시작	종료	주요성과		
					정성평가	정량평가	
						기준	성과
수도권청	호우	수원시	8월	11월	하천에 대한 지점별 영향정보 제공	2016년 수위임계값 일치율: 40%대	개선 후 수위임계값 일치율: 90%대
부산청	호우 (침수위험)	온천천	7월	10월	시범서비스 사용자 만족도 상승	-	(설문조사) '많은 도움이 됨'(86.4%)
광주청	폭염	나주시	6월	9월	폭염에 의한 온열질환자 환자수 감축	2016년 온열질환자수 전국: 2,125명(사망:17명)	2016년 온열질환자수 나주: 4명 (사망:0명)
강원청	호우 (도로교통)	강원도 주요도로	7월	9월	춘천시 교통시설 보강공사 현장 운영에 기여	(정량분석 없음)	
대전청	호우	충남 부여군	9월	11월	시범서비스 만족도 향상 및 호우피해 예방에 기여	-	부여군 서비스 만족도: 만족 40% / 매우 만족 60%
제주청	대설 (주요도로)	제주도 주요도로	12월	12월	(성과분석 추진 중)		
대구지청	폭염	대구, 경주, 안동	7월	9월	폭염에 의한 온열질환자 및 가축폐사율 감소	2016년 온열질환자수 경북: 23%증가	2016년 온열질환자수 대구: △2.3% / 안동: △11.5%
전주지청	대설	전북 정읍시	12월	2월	(시범서비스 운영 중)		
청주지청	안개 (도로교통)	청주시	10월	11월	안개 관련 정보를 도로 전광판에 제공	(정량분석 없음)	

# 모바일 기상관측차량을 아시나요?



미국에는 토네이도를 쫓는 스톰체이서(storm chaser)들이 있다. 이들은 특수하게 제작된 차량에 다양한 기상관측장비를 장착하여 스톰을 찾아다닌다. 이 특수 제작된 기상관측차량에는 기본적으로 기온, 기압, 습도, 풍향, 풍속을 측정하는 장비가 있고, 관측목적에 따라 라이다(Lidar), 파시벨(Parsivel) 등의 첨단관측장비가 탑재되어 있다. 또한, 대기를 수직으로 관측할 수 있는 라디오존데 시스템과 소형 레이더 등을 장착하여 스톰과 주변 기상상황을 파악한다.

## 영화 속 모바일 기상관측차량

스톰에 관한 영화인 <트위스터(1996)>나 <인 투 더 스톰(2014)>을 보면 토네이도를 쫓는 기상관측차량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 영화에서처럼 기상관측차량은 관측된 자료가 모니터에 실시간으로 표출되고 이러한 관측자료와 기상청 기상정보를 분석하여 스톰의 이동을 예상하고 스톰을 쫓거나 미리 이동하여 근접 관측을 시도하기도 한다. 영화에서 기상관측차량은 주로 토네이도를 추적하는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지만, 실제로 토네이도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상현상을 관측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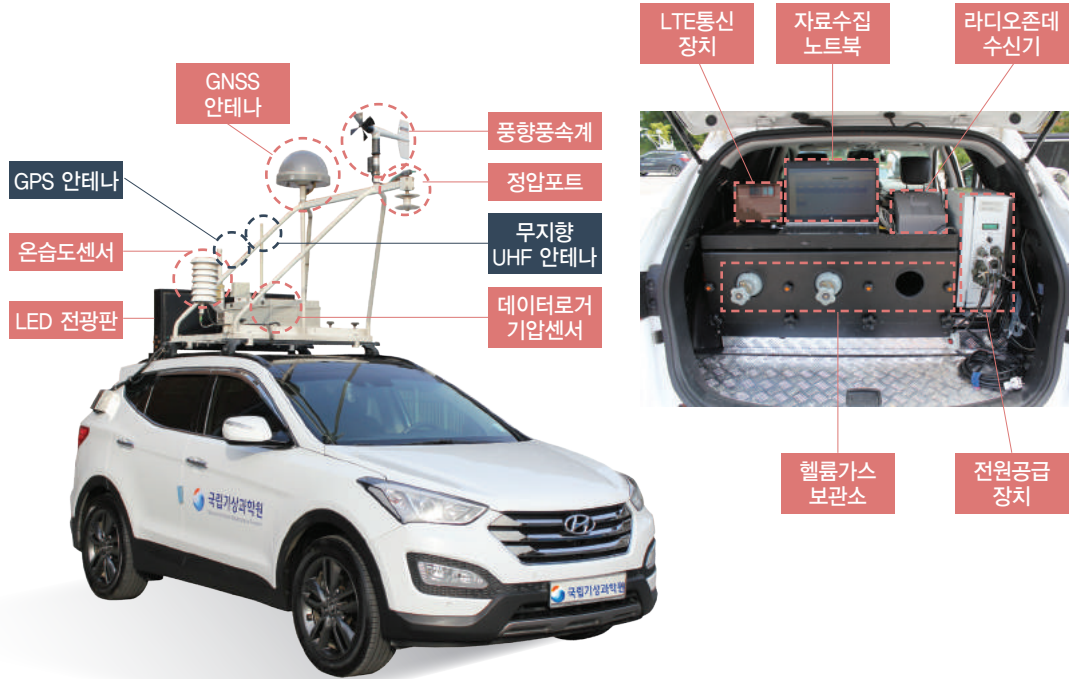
## 한국의 모바일 기상관측차량

우리나라는 미국과는 달리 평지보다 산악 지역이 많아 차량이 스톰을 쫓아가면서 관측하기는 어렵다. 이에 기상청 국립기상과학원에서는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모바일 기상관측차량을 도입·제작하여 2013년부터 활용하고 있다. 주로 관측소가 없는 관측 공백 지역으로 이동하여 지상 및 고층관측을 수행하고, 차량이 이동 중에도 고정관측만큼 정확한 기상관측을 할 수 있는 기법 등을 연구하고 있다. 또한, 재해현장에 투입하여 기상관측정보를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기능도 갖추고 있다.

## 모바일 기상관측차량의 구성

그렇다면 모바일 기상관측차량은 어떻게 구성되어있을까? 국립기상과학원의 모바일 기상관측차량은 SUV 차체에 AWS(자동기상관측시스템)을 얹은 형태이다. 차량 지붕에는 고정 프레임이 설치되어 기온, 기압, 습도, 풍향, 풍속, 강수량 측정 센서를 장착하였고, 프레임 하단부에는 아날로그 및 디지털 신호를 처리하여 저장하는 데이터 로거가 있다. 프레임 뒤쪽으로 설치된 고층관측용 UHF 안테나는 차량 내부 뒷공간의 라디오존데 시스템과 연계된다. 뒷공간은 헬륨가스 보관함과 전원공급장치를 두고 있어 언제든지 지상과 고층관측이 가능하고, 노트북과 유무선 공유기를 장착하여 관측자료를 실시간으로 수집서버로 전송한다. 이렇게 수집서버에 들어온 관측자료는 관측자료품질검사(Quality control)를 통해 관측 오류값을 제거하는 과정을 거친다. 차량 뒤쪽에는 전광판이 있어 필요에 따라 관측 정보를 실시간으로 표출할 수 있다.





## 모바일 기상관측차량의 관측 방법

모바일 기상관측차량의 관측은 관측 공백 지역에서의 '고정관측'과 차량이 이동하면서 기상정보를 수집하는 '이동관측'으로 구분한다. 이동관측으로는 '집중관측', '목표관측', '기타관측'이 있다.

집중관측은 위험기상현상을 상세히 관측하고 대기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특정 지역에서 특정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지상과 고층을 관측한다. 주로 일주일 이상 산악, 해안, 도심외곽 등에서 수행되며, 장마, 호우, 겨울철 대설 등이 타겟이 된다.

목표관측은 모바일 기상관측차량의 기동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관측이다. 예를 들면 좁은 지역에서 단시간 내에 구름(적란운)이 급격히 발달하는 경우인데, 이러한 구름에서 내리는 폭우 등 위험기상이 예상되는 지역으로 빠르게 이동하여 관측을 하게 된다. 하지만 예상이 틀리거나 이동 중 해당 기상현상이 끝나는 등 아직까지는 관측 성공률이 낮은 것이 현실이다. 목표관측에 해당되는 기상현상으로는 적란운, 태풍, 용오름현상, 폭염, 강풍 등을 들 수 있다.

기타 관측으로는 현실적으로 관측장비를 설치할 수 없는 도심지, 고속도로, 농경지 등에서의 관측이다. 주정차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특정 구간을 주기적으로 왕복 관측하는 방법을 활용하고 있다. 최근 2018평창동계 올림픽 기상지원을 위하여 영동 고속도로 상에서 시정, 도로결빙 등 이동관측을 하고 있다.

## 차세대 이동관측인 모바일 기상관측

이러한 이동관측은 여러 가지 여건상 차량이 달리면서 관측하기 때문에 고정관측보다 관측 오차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차세대 이동관측으로 주목받고 있는 모바일 기상관측은 아직 초기 단계로 앞으로 관측장비의 개선과 관측자료의 오차 보정 기법이 개발된다면 이동관측의 밝은 미래를 기대해볼 수 있을 것이다. 📖

# 나는 정말 행복합니다!

검찰에 다니던 나는 우연히 부처 간 인사교류를 통해 기상청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었다. 검찰에서 일 잘하고 있는데 굳이 인사교류를 하느냐고 극구 말리시던 여러 동료분들, 간부님들을 뒤로하고 새로운 도전과 출발을 위해 마음을 다잡았다. 그리고 2013년 5월, 기상청 해양기상과 기상통신소로 새롭게 시작했고, 기상통신소가 그해 6월 김포에서 경북 김천 혁신도시로 이전하게 되면서 나에게는 새 건물, 새로운 일, 새로운 분들과 인생의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게 되었다.

## 부담감을 뒤로하고 정진!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정신이 하나도 없었다. 기상통신소에서 내가 맡은 일은 해양기상정보를 어민들에게 보내주는 일이었다. 이 일은 나에게 큰 부담감으로 다가왔다. 내가 정보를 잘못 보내거나 보내지 못할 경우 바다에 나가 있던 어민들이 험난한 파도를 만날 수도 있고 생명의 위험까지도 연결될 수 있다는 사실 때문이었다. 송신기, 안테나, 서버 등 여러 가지의 변환기 또 이것들을 보조해주는 여러 장비들 중 하나만 잘못되어도 해양정보, 해양날씨를 필요한 사람들이 받아볼 수 없다고 하니 배우고 또 배우고 더욱 열심히 할 수밖에 없었다. 기상1호의 도움을 받아 직접 배에 승선해서 멀미도 해보고 거센 파도도 체험했다. 또한, 우리가 하는 일이 잘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테스트도하며 많은 것들을 배웠다. 가족 같은 기상통신소 직원들의 배려와 도움으로 어느새 국민에게 도움을 주는 기상청의 한 일원이 되었다. 왠지 뿌듯하고 어깨가 으쓱할 때도 있다. 다시 생각해봐도 감사할 일이 너무 많다.

## 하나에서 이젠 셋으로

전 근무지에 있을 때부터 5년 정도 교제했던 여자친구, 하지만 예전 나의 모습을 보던 여자친구는 결혼까지는 고려하지 않았다고 한다. 나라도 9살 차이가 날뿐더러 너무 지쳐 보이고 여유가 없어 보였다고. 하지만 기상청에 근무하며 시간이 흐르니 얼굴도 좋아지고 사람이 좋아 보인다고 했다. 김천에서 수도권까지 장거리 연애를 2년을 더하고 서로 애뜻함이 커져 더 이상 따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 싶어 양가 부모님께 허락을 받고 2015년 4월, 마흔이라는 늦은 나이에 결혼을 했다. 무릎도 꿇고 고생시키지 않겠다며 다짐하며, 어렵게 허락을 받았던 때를 생각하면 더 잘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김천 혁신도시에 보금자리를 마련하고 2016년 7월에 한 아이의 아빠로 거듭 태어났다. 혼자의 삶에서 한 가족의 가정이 되었다. 가끔 잔소리는 하지만 나를 잘 이해해주는 여보님과 예쁜 공주님



송대성  
해양기상과



이 있다. 팔불출 소리 들어도 좋다. 내 딸 너무 예뻐 죽겠다. 이 세상에서 제일 예쁘다. 여보님도 예쁘다. 많이는 아니지만 책을 보는 마음의 여유도 생기고 나이 많은 아빠 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운동도 꾸준히 하니 몸도 마음도 건강해지는 느낌이다.

### 김천혁신도시 변화

지금 근무하는 김천혁신도시 기상통신소의 어느 곳과 비교해도 최고라고 말하고 싶다. 아침엔 새소리에 기분이 좋고 가끔이지만 밤에 고라니도 다닌다. 처음 이주했을 때는 변변히 밥 먹을 식당도 없어서 많이 불편했는데 내가 자리를 잡는 것처럼 이곳도 어느 신도시 못지않은 곳으로 같이 자리 잡는 것 같아서 더 애착이 간다. 한 가정이 안정을 찾으니 그다음은 저절로 행복이 찾아오는 거 같다.

### 내 생애 가장 행복한 순간들

나에게는 지금 이 순간이 너무 소중한 내 생애 제일 행복하다. 내일이 되면 오늘보다 더 행복할지도 모른다. 기상청으로 오면서 속된 말로 내 인생이 풀렸다. 기상통신소에 방문하여 나의 생활을 돌아볼 기회를 주신 행복전도사 차장님께 감사드리며, 국장님, 과장님, 해양기상과 직원들 모두 감사하고, 기상청이 고맙고, 기상청 직원들 모두 모두 고맙다. 못할 것 같던 결혼도 하고 팔불출 소리도 듣는다. 소소하지만 이 글을 통해 다른 분들에게도 나의 이 행복 바이러스를 전파해 드리고 싶다. 📖





# 기상청을 시원하게 대변하다!

아직 동이 트지 않은 이른 새벽, 잠든 아이들이 깽깽봐 조심스레 이불 밖으로 나온다. 이젠 제법 일찍 일어나는 것에 익숙해졌는지 차가운 새벽공기에 상쾌함마저 든다. 집을 나서니 간밤에 내린 눈이 제법 쌓여있다. 발자국을 남긴다는 게 미안할 정도로 새하얀 눈길을 걸으며 출근길에 오른다. 새벽에 새로 나온 날씨 관련 기사들을 보며 기상청에 도착하면 아직은 대부분의 사무실이 깜깜하다. 24시간 계속 불이 켜져 있는 2층을 제외하면 기상청에서 제일 먼저 불이 켜지는 곳은 아마 대변인실 일 것이다.



최의수  
대변인실



## 치열했던 지난해의 기억

컴퓨터를 켜고 오늘 나온 신문스크랩 자료들을 정리하고 나니 약간의 짬이 생겼다. 잠시 커피를 마시며 사무실을 돌아보니 문득 한쪽 벽면에 놓여있는 커다란 부채가 눈에 들어온다. 작년 폭염피해 예방 '해피해피 캠페인'을 위해 특별히 제작된 것이다. 거기에 쓰여진 '2016년 그해 여름은 뜨거웠다!' 라는 글귀를 보니 문득 처음 대변인실에 발령받았던 작년 3월, 그리고 그 이후 치열했던 한해의 기억이 떠오른다.

대변인실에 처음 출근하던 날은 마치 기상청에 막 입사한 그때처럼 설렘이었다. 하지만 그런 설렘도 잠시 이내 올려대는 전화와 업무에 정신없이 지내다 보니 어느새 1년이 훌쩍 지나버린 것 같다. 개인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2016년이지만 대변인실, 나아가 기상청에도 2016년은 정말 다사다난했던 해로 기억에 오래 남을 것이다. 봄철 미세먼지를 시작으로 장마, 폭염, 북한 인공지진과 그 여파가 채 가시기도 전에 발생한 9.12 지진 그리고 10월 태풍 '차바' 등등. 한 해에 한 번 나올까 말까한 사건들이 연이어 터져 기상청은 한동안 언론의 집중적인 관심을 받아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다. 하지만 그런 와중에도 우리 아름다우신 과장님의 지휘 아래 하나로 뭉쳐 침착하게 대처하는 대변인실 직원들의 모습은 마치 영화 '베테랑'의 광역수사대 같은 베테랑의 모습 그 자체였다. 이른 새벽은 물론이고 밤늦도록 언론과 소통하며 기상청을 대변하기 위해 애쓰는 직원들의 모습에 존경심이 절로 일어났다.

## 대변인실의 성장과 성과

비단 이뿐만이 아니라 대변인실의 주요 업무인 홍보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대변인실이 농심켄로그와 협력하여 추진한 영향예보 홍보도 좋은 반응을 이끌어냈으며, 거기에 개인적으로도 '우리 몸엔 영양~, 우리 삶엔 영향~예보'란 홍보문구 아이디어로 약간의 힘을 보탬 수 있어서 나름 뿌듯했다. 거기에 민·관이 함께 참여한 여름철 폭염피해예방 캠페인과 겨울철 위험기상예방 캠페인도 성공적으로 치러냈다. 그리고 그 외에도 기상청 슈퍼컴퓨터에 대한 오보에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청구를 하여 정정보도문을 게재하게 하였으며, 문화체육관광부가 각 기관의 보도자료를 평가하는 중앙행정기관 '쉽고 바른 공공언어 쓰기' 평가에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하는 등 많은 성과가 있었다.

## 책임감으로 시작하는 새로운 한 해

개인적으로도 내가 몸담고 있는 기상청에 대해서도 많은 것을 생각할 수 있었던 한 해였던 것 같다. 단순히 기상예보를 생산하고 전파하는 기상청이 아닌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고민하고 애쓰는 각 부서들의 노력을 알 수 있었으며 또 그것을 널리 알리기 위한 우리 대변인실의 책임이 다시 한번 무겁게 느껴졌다.

문득 정신을 차려보니 어느새 날이 밝아있다. 벌써 전화벨이 울리는 걸 보니 오늘도 바쁜 하루가 될 것 같다. 올해는 기상청도 많은 부분이 변화되었고, 대변인실도 새로운 과장님을 모시고 새로이 시작되는 한 해가 될 것 같다. 하지만 언제나 대변인실은 어디 하나 막히는 곳 없이 시원하게 기상청을 대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늘 그랬듯이.☀





## 좋아서 하는 밴드 동호회 '스페이스 사운드'

시작은 그랬다. 대국민 재능 발굴 TV 프로그램이 큰 공감대를 형성했던 시절에, 끼와 흥이 넘치는 기상인들을 위해 기상청에도 슈퍼스타 KMA가 있었다. 국가기상위성센터에서도 수소문 끝에 학창시절 F코드 좀 잡아봤다는 직원들이 모여 락밴드를 결성하였는데 겸손하게도 이름하여 “오합지졸”이었다. 대단한 음악적 영감이 있다기보다는 음악을, 악기가 그냥 좋아서 하는 밴드 동호회가 충북 진천군 광혜원면 산꼭대기에 위치한 국가기상위성센터에서 “스페이스 사운드”라는 다소 야심 찬 이름으로 시작되었다. 나 역시 길을 가다 우연히 귀여운 외모에 현혹되어 구매한 우쿨렐레를 소유하고 있다는 핑계 삼아 없는 재능을 메리트로 밴드 동호회의 회원이 되었다.

### 스페이스 사운드의 송년 음악회

스페이스 사운드는 2011년에 시작된 이래로 정기적으로 위성센터 직원들을 관객으로 초청하여 송년 음악회를 꾸준히 개최했다. 주로 송년 음악회는 자원한 회원들의 공연으로 진행되었는데, 올해는 위성센터를 두 번이나 떠나가시는 원재광 위성기획과장님과 언더그라운드 락에서 최신 걸그룹 음악까지 다양한 음악적 스펙트럼을 가지신 연혁진 위성운영과장님, 널리 세상에 더 이롭게 재능을 사용하기 위해 쿨하게 기상청을 마무리하신 위성분석과의 이명진 회원님의 송별모임에 초청되어 위성센터 전 직원 앞에서 미니 공연을 하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 이를 위해 5분이면 마스터할 수 있지만 한 음 한 음 협주의 묘미가 있는 핸드벨 공연인 ‘석별의 정’ 연주를 통해 보내드리는 마음을 전달했다. 미숙한 연주에도 많은 직원들이 헤어짐에 아쉬운 마음으로 집중해서 들어주시는 것이 느껴져 몽클한 순간이었다.

즐기는 사람은 이길 수가 없다고 했던가, 평소 따라갈 수 없는 추진력과 적극성으로 업무뿐만 아니라 모든 상황을 유쾌하게 만드시는 두 분, 위성운영과의 이승복 회원님과 위성분석과의 김창렬 회원님의 고퀄리티 색소폰 연주는 순간 조지 클루니가 겹쳐져 보일 정도로 젠들함 그 자체였다. 마지막으로 평소 개인적으로 버스킹 공연을 자주 한다고 하는 차세대위성개발과의 오수민 연구원과 위성분석과의 정선영 연구원의 공연으로 위성센터 지하식당에서 흥대 놀이터에 온 것 같은 상큼함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다. 당장 인디밴드를 결성해도 될 만큼 수준급의 기타와 쟈메 실력을 갖춘 두 훈훈한 연구원의 공연에는 많은 직원들이 앞으로 나가 일어서서 관람하고 앵콜을 외치는 등 열렬한 호응이 나오기도 했다.



우진  
국가기상위성센터





### 스페이스 사운드의 잊지 못할 추억

이 밖에도 스페이스 사운드는 그동안 소소하지만 잊지 못할 많은 추억들을 남겼다. 날씨가 좋은 몇 번의 가을날에는 위성센터 근처 자연휴양림에 엠티를 갔었는데, 누구 하나 시킨 적이 없는데도 한 명 두 명 기타를 치고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더니 세상의 좋은 노래는 다 부르고 왔었던 것 같다. 또 어느 날에는 인사이드동으로 동호회를 떠나가시는 감사님이시자 정신적 지주, 스페이스 사운드의 베이시스트였던 박영원 서기관님을 위해 위성센터 강당에서 깜짝 공연을 준비하기도 했었다. 함께 보낸 시간만큼 켜켜이 쌓인 행복한 기억들로 가득한 동호회라고 자부한다.

### 함께한 모든 시간이 눈부셨던 스페이스 사운드

사실 밴드동호회 회원의 대부분은 독학으로 악기를 학습했다. 절대음감이거나 음악적 재능이 남다른 사람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소소하게 좋아하는 악기를 연주하면서 누군가는 업무의 노곤함을 해소하고, 누군가는 가족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누군가는 늘어나는 실력에 스스로 감탄하며 본업을 전환해야 하나 고민도 하면서 동호회 활동을 하고 있는 스페이스 사운드에 앞으로도 좋은 날이 펼쳐지기를 기대해본다. 스페이스 사운드와 함께한 모든 시간이 눈부셨다. 날이 좋아서, 날이 좋지 않아서, 날이 적당해서 모든 날이 좋았다. 🎵



# 세상을 바꾸는 작은 기적, '땅울림'

지난해 여름, 선생님으로부터 지진, 지진해일, 화산에 대한 지식을 쌓고 홍보활동을 하는 동아리 '땅울림' 모집 소식을 듣게 되었다. 평소 기상 현상에 관심이 많았던 나는 열정 넘치는 친구들과 함께 설레는 마음으로 계획서를 작성하기 시작했고, 계획서가 통과되어 땅울림 활동을 하기를 간절히 바랐다. 그리고 들려온 예선통과 소식에 친구들과 펄 듯 기뻐했다. 자신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처음 계획을 세웠던 과제들뿐만 아니라 더 많은 활동을 통해 지진, 지진해일, 화산에 관한 정보를 사람들에게 전달하겠다고 굳게 다짐했다.



발대식

화산 분출 실험

주변 대피 시설 안내판



박다빈  
충남여자중학교

## 뜨거운 반응이 오기까지

유난히도 더웠던 여름, 우리 팀은 여름방학을 맞이하여 개학 후에는 실천하기 힘든 활동들을 먼저 시작하기로 결정했다. 우리 팀의 첫 활동은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아이들을 대상으로 지진에 위험성과 대피요령을 재미있고 알기 쉽게 보여주는 것이었다. 직접 연극 대본도 작성하고, 배경음악도 만들어 떨리는 마음을 안고 어린이집에 방문했다. 생각보다 아이들의 반응도 좋고, 함께 대피훈련을 할 때도 소리까지 지르며 따라 하는 아이들의 모습에 흐뭇했다. 집으로 돌아가 부모님께 지진 대피 요령에 대해 말해주는 아이들도 있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교육과 경험의 효과가 크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화산 분출 실험도 직접 보여주며 아이들에게 재난에 대한 간단한 지식들과 대피요령에 대해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었던 것 같다. 걱정했던 활동이 뜨거운 반응으로 좋은 결실을 맺게 되니 다음 활동이 더욱 기다려졌다.



어린이집 연극

지진계 & 경보기 제작



## BOOK by BOOM

기상청에서 나누어 준 책자, 지식백과를 참고로 하여 재난에 대한 상식과 여러 정보를 모아 우리가 직접 책으로 제작해보기도 했다. 우리 학교에 기증할 책과 어린이집에 기증할 책을 친구들과 밤이 될 때까지 재미있게 작업하면서 우리도 많은 지식을 얻게 되었고, 친구들에게도 전할 수 있어서 뿌듯했다. 완성된 책을 보니 감동적이고, 뿌듯했다. 도서관에 책 비치 후 'BOOK by BOOM' 행사를 진행하여 소감과 피드백을 얻는 활동도 하며 친구들이 더 친숙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지식을 얻어갈 수 있도록 했다. 이 활동을 SNS로도 홍보하며 더 효과적인 활동을 진행했다.

## 안전디딤돌, 학교와 시민들과 함께하다

카드뉴스, PPT, UCC 제작 활동은 정기적으로 진행했다. 활동을 마무리할 때에는 학교방송으로 모든 학년의 학생들이 재난과 관련하여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했다. 총 2회에 걸쳐 방송을 진행했으며, 더 재미있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직접 만든 안전디딤돌 홍보 UCC와 학교 주변 지역의 재난 대피소를 지도에 표시하여 나타낸 안내판도 방송하였다. 학생들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도 카드뉴스와 재난 정보지를 나누어주고 아파트 게시판에도 게시하였다. 처음 이런 활동을 시작할 때는 쑥스러웠지만 시민들의 큰 호응으로 자신감을 가지고 마무리할 수 있었다.

## 끝이 아닌 첫걸음이 되길

약 3개월 동안 '땅울림' 동아리를 하면서 팀원들과 함께 작업하고, 카페에서 밤을 새워가며 자료들을 만들던 것이 엇그제 같은데 벌써 '땅울림'은 과거가 되어버렸다. 이 소중한 기회를 함께 협력하며 열심히 해온 우리 팀이 자랑스럽고, 늘 조언을 아끼지 않았던 선생님께도 감사함을 느낀다. 2016년 잦은 지진이 발생했듯이 더 이상 안전하지 않은 우리나라에서 대피 요령을 미리 숙지하고 있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우리의 활동이 끝이 아닌 첫걸음이라는 생각으로 앞으로도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는 활동이 지속되길 기대한다. ☘





# 소목공예 예찬!

성공과 행복의 기준이 뭘까?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겠지만, 나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사는 것이 진정한 성공이며 행복이라고 생각한다. 기상청에 들어온 지 올해로 25년째, 그동안 뭘 했지? 진정 나답게 살아왔을까? 생각해보면 헛웃음이 먼저 나온다. 경제적인 문제, 잦은 인사발령 등을 이유로 못했다고 생각했었지만 결국 그건 핑계이지 않을까? 맨날 계획만 세우고, 실천하지 못했던 나 자신을 탓해야 하지 않을까!

## 막연한 목공예 꿈을 시작하다

그동안 막연히 목공예에 대한 꿈이 있었다. 성인이 되고, 직장생활을 하면서도 언젠가 꼭 해봐야지 하는 생각은 늘 가지고 살아왔다. 딱히, 목공예 소질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자연의 파릇함이 좋고, 목재로 사용할 때 나무의 향과 다양하게 나타나는 나뭇결이 좋기 때문이다. 그러던 2015년 벚꽃이 만발하던 봄날 저녁, 공원 산책을 하다가 늦도록 불이 켜진 동네 목공방에 잠시 들렀는데 회원 몇 명이 무언가를 열심히 만들고 있었다. 자녀를 위한 책상, 손주를 위한 침대, 아내를 위한 화장대 등등. 주중은 직장생활로 바쁘기 때문에 휴일과 밤늦게까지 작업을 한다고 했다. 늦기 전에 취미생활을 시작하라고 조언하시는 회원님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나도 정말 늦기 전에 시작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집에 도착하여, 아파트의 오래된 싱크대 교체를 공약으로 마나님을 설득하고, 다음날 바로 공방에 등록하였다.

## 소목공예의 매력에 빠지다

그동안 아껴두었던 비자금으로 수공구(대패, 끌, 톱 등)를 몽땅 구입하고 야심 차게 출발했는데, 대패 날 갈기와 목공구 교정, 그리고 기본 톱질과 목공끌 사용법을 익히기 등의 지루한 기본 교육과정은 3개월이나 계속되었다. 그렇게 조금씩 시간을 쪼개어 소목공예를 배우고 주말마다 작업하여 드디어 작년 늦가를 싱크대 상부장을 완성하였다. 큰 기대를 안 했던 마나님도 내가 만든 싱크대가 마음에 들었던지, 지금은 하부장도 마저 완성해 달라고 아우성이다. 현재는 하부장 중 가스렌지대까지 마친 상태이다. 빨리 싱크대 작업을 마무리하고서, 짜맞춤 가구에 전념하고자 한다.

내가 진정으로 하고 싶은 짜맞춤 가구는 못이나 접착제를 쓰지 않고 목재에 흠을 만들어 끼워 맞추는 방식으로 만드는 소목공예이다. 정교하고 세밀한 작업이 필요하여 공정에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단점이 있지만 환경호르몬 걱정도 없고 오래 사용해도 비틀어지거나 휘어짐이 없는 견고하고 내구



**이병철**  
광주지방기상청



성이 튼튼하다는 장점이 있다. 기술 습득도 어렵고 한순간의 어긋남으로 그동안의 작업이 무산될 수 있는 힘겨운 수작업의 연속이지만, 공방에서 보내는 시간은 마냥 행복하고 즐겁기만 하다.

### 소목공예 예찬!

나의 취미는 소목공예(짜맞춤가구 제작)이다. 우리 전통가구의 우수한 내구성과 멋을 계승하고, 실용적인 면을 발전시켜 현대생활에 알맞은 생활가구로 풀어낼 수 있는 창의적인 취미라고 감히 공언할 수 있다. 소목공예는 심플하면서도 고급스럽다. 싱그러운 나무의 결을 최대한 살려 절제된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목공예품을 보면 죽어서도 죽은 것이 아닌 나무에 대한 경외심이 생긴다. 그 아름다운 무늬결은 좋아서만 생긴 것이 아니다. 엄동설한을 이겨낸 그 각고의 시간이 무늬를 만들었을 것이다. 나무는 살아생전 가장 힘들었을 그 시기를 아름다운 무늬로 남긴다. 그래서 소목의 한 작품 한 작품에는 철학이 있고 의미가 있다. 나도 단순 취미를 넘어서 '작품'이라고 내세울 수 있는 목공예품을 만들기 위해 계속 정진할 것이다. 그래서 공방 스승님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작품'을 만들어 전시회를 열고 싶다.

“한번 지나가 버린 것은 다시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때그때 감사하게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라는 법정 스님의 말씀처럼 여러분들도 나답게 사는 게 무엇인지 어떤 게 진짜 행복인지 한 번쯤 고민해 보고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위한 용기와 열정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길 바란다.☺



현재 다니고 있는 공방 스승님의 작품들



## 사람 가는 곳에 길을 만듭니다

기상청 옆 보라매공원에서 자주 산책을 하곤 했습니다. 봄철 산책을 하다 보면 철쭉 꽃이 핀 화단을 가로질러 난 길들이 보입니다. 화단을 헤치고 가로지른 것이죠. 어느새 한 사람 발자국 크기만큼 나다가 점차 다람쥐가 다닐 만큼 표가 납니다. 좀 지나면 내가 다녀도 부끄럽지 않을 정도로 커지곤 합니다. 그러다가 조금 지나면 보라매공원 측은 그곳을 막는 것이 아니라 아예 작은 보행로를 만들어 줍니다. 지나다니면서 조금은 꺼림칙했는데 보행로를 만들어 주기까지 하니 개운해지고, 때로는 내 손발로 만든 보행로처럼 오히려 애정이 깃들기도 하며 몇몇해지기까지 합니다. 나도 이 길을 만들었다는, 이상하고도 뿌듯한 마음도 말입니다. 또한, 그 보라매공원 소장님의 결단과 인정이 대단하게 느껴집니다.

산길을 가다 보면 비슷한 일을 겪게 됩니다. 같은 방향인데 여러 갈래의 길이 나옵니다. 그런데 길이 스스로 진화하는 것처럼 이제 막 새롭게 나는 길도 있고, 점차 가지 없게 되면서 흐려지면서 사라지는 길이 있습니다. 길은 살아있는 것처럼 스스로 생겨나기도 하고 점차 길다워지기도 하며, 어떤 길은 점차 폐가처럼 모양을 잃어버립니다. 사람들이 이용 정도에 따라 그 존폐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각각의 사람들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만들어지는 길은 계속 만들어지고 사라지는 길은 사라집니다. 개개인의 선택이 집단의 선택으로 바뀝니다.

사람들이 다니는 곳은 길이 되는 공통점을 가집니다. 산속에서든 보라매공원이든. 그런데 이것이 실제 생활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길이 아니면 사람들이 다녀도 제재를 받게 됩니다. 기존에 있는 완고한 길만을 길로 인정하며, 없는 길로 가는 것은 규칙을 어기는 것이 되고 질서를 어기는 일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 법과 제도를 들이대면 길이 아닌 곳을 가기가 힘들어집니다.

지금 하는 일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는 일은 내가 가고 있는 곳인지 그래서 이것을 계속하면 길이 만들어지는지 말입니다. 아니면, 기존 길을 계속 따라가며 길이 아닌 곳은 가지 말아야 할지 말입니다. 그런데도 하고 싶은 것이 있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이탈이라도 하고 싶은 때 한 번쯤 이탈한다면 잠시라도 존재감을 느끼게 되고 행복해집니다.



윤기한  
예보국

신영복 선생의 『담론』이라는 책을 보면 가장 먼 여행은 머리에서 가슴이라고 합니다. 머리로 알고 있는 것보다 동감할 수 있는 가슴으로 느끼는 것이 어렵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한 발 더 나가서 가슴에서 다리로 가는 여행이 있다고 합니다. 동감에 그치지 않고 다리로 함께 걸어야 실천과 연대로 갈 수 있고, 그제서야 그 여행은 끝나는 것이라고 합니다.

혼자 살 길을 모색해야 하는 각각도생의 삶 속에서 사람들이 가는 곳에 길을 만들어 주는 것이나 관심을 보이는 것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머리에서 가슴으로 다시 다리로의 먼 여행을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보라매공원 보행로를 거닐 때마다 내가 길을 만들었다는 떳떳함과 함께 그 작은 이탤이 옳았다는 사실이 증명된 것 같아 마음이 놓였습니다. 더 나아가 좀 더 편안한 길을 만들 수 있도록 작은 힘을 보탤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이 가는 곳에 길을 만드는 것은 사람을 믿는 것이기도 합니다. 비록 개인으로 보면 이탤이나 질서 위반일 수 있지만 그 사람들이 모여 이룬 것을 보면 가장 합리적인 판단을 하고 결론을 낸다는 것입니다. 예보를 낼 때도 사람들의 의견이 모이면 모일수록 그 예보값은 더 정확한 값에 접근하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무시간에 창밖의 기온을 맞출 때 보면 각자가 말한 평균값이 어느 정도 실제 기온과 비슷한 값을 나타낼 때가 많습니다. 평균의 지혜라고 할까요. 많은 사람이 할 때는 개개인으로 볼 때 볼 수 없었던 힘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힘을 믿어주는 것이고요.

직장 후배의 가는 길에 방향을 알려주는 멘토 역할을 할 때도 때론 나의 편견이나 주관으로 기울 때가 많습니다. 대신 그들이 가는 곳에 길을 만든다면 그들도, 나도 조금은 의미가 있는 개개인이 되겠죠. 제가 가는 길에 누군가 길을 만들어 준다면, 그 누군가가 많은 사람들 속에 파편처럼 나뉘어 있더라도 그 사람들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사람 가는 곳에 길을 만듭니다. 오늘도 지침처럼 잊지 않으려 합니다. ☺



## 날씨가 범죄에 영향을 끼친다?

우리 삶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날씨! 경제, 레저, 교통, 문화 등 날씨가 끼치는 영향이 크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날씨가 '범죄'에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또, 날씨가 범죄의 발생 횟수와 범죄의 종류에 영향을 끼칠까요? 호기심과 궁금함이 생기는 질문입니다. 지금부터 날씨와 범죄 관련 데이터를 통한 '날씨'와 '범죄'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예지  
기상청 블로그 기자단

### 날씨에 따라 범죄의 종류가 바뀐다?

날씨와 범죄 관련 데이터를 살펴본 결과, 계절마다 성행하는 범죄가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월부터는 마약과 강도사건이 급증하였고, 음주운전은 4~5월과 7~8월에 몰려있습니다. 1년 중 가장 범죄가 자주 발생하는 계절은 봄과 여름으로, 날씨가 풀리다 보니 사람들의 외부활동이 빈번해지면서 그만큼 범죄에 노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함께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또한, 계절이나 달에 따라 두드러지는 범죄도 조금씩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 월별 가장 많이 발생하는 범죄는?

날씨가 풀리는 3월과 4월 등은 마약과 강도 등 강력범죄가 특히 증가하는 시기로 꼽힙니다. 2014년 기준 3월과 4월의 강도 범 죄는 각각 181건, 166건으로 다른 달 평균인 100~130건보다 30~50건가량이나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음주운전의 경우 겨울보다 4~5월과 7~8월에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작년의 경우 이 녁 달 동안에 단속된 음주운전 사범은 8만 2,509명으로 전체 2만 9,392명 가운데 37.6%를 차지한 것으로 보아 알 수 있습니다.

도박범죄는 봄과 가을에 집중되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중에서도 가을이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외부 활동하기 좋은 날씨인 데다가 추석 등 명절 연휴가 포함된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범죄는 해마다 여름의 비중이 늘어나면서, 대표적인 여름철 범죄 중 하나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2007년 여름 기간에 발생한 성범죄 3,926건으로 전체 성범죄 1만 3,478건의 29.1%를 차지했지만, 2014년에는 2만 9,863건 가운데 9,635건으로 32.3%를 차지하면서 성범죄가 6월부터 8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몰려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범죄가 가장 적은 달은 '2월'

그렇다면 반면에 범죄가 가장 적은 달은 언제일까요? 범죄가 상대적으로 적게 일어나는 달은 2월입니다. 평균보다 범죄의 수가



20~30%가량 적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원인을 보게 되면, 물리적으로 다른 달보다 일수도 적은 데다 추위 등이 겹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 가장 많은 범죄가 발생하는 요일은?

그 밖에 요일별로는 일주일 가운데 토요일이 15.6%로 가장 범죄가 많이 발생한 반면, 월요일에는 13.2%로 범죄 발생률이 가장 낮았습니다. 발생시간대별로는 저녁 9시부터 밤 12시 사이에 22.4%로 이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범죄가 발생한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35도를 오르내리는 한여름철에는 상해나 폭행처럼 사람의 신체 접촉에 관계되는 사건이 많은 반면, 가을에서 겨울까지 기온이 점차 찾아질 무렵에는 문서 사기나 위조 같은 유형의 사건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이런 현상은 미국의 사회학자인 텍스터 박사의 기온변화가 사람의 심리에 영향을 미쳐서 행동에까지 이르게 한다는 연구와도 일치하는데, 추운 겨울에 사람의 행동은 소극적이 되는 반면 머리 회전이 좋아지고, 더운 여름에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감정이 쉽게 폭발해서 우발적인 행동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감정과 심리, 범죄까지 영향을 끼치는 '날씨'는 정말 우리 삶에 깊숙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

\* 참고: 헤럴드경제, 스포뉴스





## 손석희가 말하는 법

저자 부경복 | 모멘텀

손석희 씨의 방송을 보면 참 깔끔하다. 물론 말끔한 얼굴도 좋은 느낌을 주는데 한몫을 하지만 그의 말투와 목소리 톤이 좋았다. 서로 다른 의견이 충돌하는 토론장의 소란을 일순간에 정리하는 탁월한 능력, 감탄스럽고 닳고 싶었다. 이런 평소의 호감으로 글동 추천 도서인 『손석희가 말하는 법』을 선택했다. 이 책에서는 그가 진행하는 토론 내용을 깊이 있게 분석하여, 손석희 특유의 말하는 법의 의미와 대화에서의 역할을 12가지 법칙으로 설명하고 있어, 그중 몇 가지를 소개하려고 한다.

스스로 상대방과 싸우지 마라,  
상대방이 반대의 생각과 싸우게 하라.

대화나 토론의 목적은 내 생각을 남에게 전달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합의점을 찾아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상대방이 관점이나 의견이 아닌 나를 적으로 인식하면 대립을 넘어선 합의점을 찾기 어렵다. 손석희의 말이 언제나 차분하게 상대방의 오류를 찾아내는 이유는, 상대방을 반대 생각과 싸우게 함으로써 자신(손석희)과 상대방의 감정 개입을 통제하기 때문이다.

주장부터 늘어놓지 마라.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실을 먼저 말하라.

그는 자신의 주장을 늘어놓기 전에 상대방에게 사실을 묻고 자기 생각을 사실로 풀어서 말한다. 손석희의 말이 명쾌한 이유는 상대방의 주장을 주장으로 답하지 않고 사실로 풀어 말하고 묻기 때문이다.

상대방의 주장을 상대방이 알고 있는 사례에 적용해  
스스로 답하게 하라.

그는 누구나 알고 있는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상대방을 꼼짝 못 하게 만든다. 이런 방식의 말하기는 20세기 4대 명연설로 꼽히는 마틴 루터 킹의 워싱턴 DC 링컨 추모관 연설인 ‘나에겐 꿈이 있습니다.’에서 잘 나타난다. 그는 자신의 주장이 정당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흑인과 백인 모두 한 번쯤 보거나 경험한 것들을 제시하여 그의 주장을 부인할 수 없게 한다.



박상순  
수도권기상청

### 다수를 인정해주라. 그들에게 합리성을 물어라.

그의 말에는 독설이 없는데도 가슴이 땡 뚫리는 것 같다. 그는 맹목적으로 소수나 약자를 지지하는 방식으로 말하지 않는다. 무작정 소수의 편에서 말했다면 사람들은 고마워했을지언정 통쾌하다고 말하지 않는다. 다수가 주도하는 현실을 명확하게 인정하고, 대신 합리성이라는 사회적 의무를 요구하기에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는 통쾌함을 느낀다.

### 상대방의 강한 말에 귀 기울여 들어라. 그 말로 상대방을 스스로 검증하게 하라.


그는 주제에 대한 상대방의 생각을 먼저 묻는 부드러움을 보인다. 또한, 고성이나 답변을 강요하지 않고 주장의 오류를 정확하게 비춰내고 상대방을 압도하기에 나약하지 않고 부드럽다. 상대방의 오류를 보이기 위해 상대방 말을 다시 활용해 다른 상황에 적용해 들려주기에 손석희의 말이 절묘하게 들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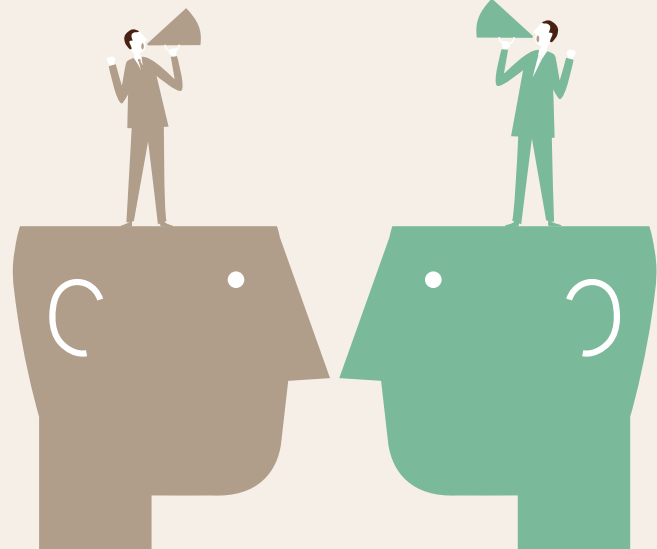
### 주장하는 자에게 사실을 말하게 하라. 사실 검증의 장에서 싸우라.

그는 주장을 반복하는 상대방의 주장 자체를 공격하는 대신 사실을 말하게 유도한다. 손석희가 상대방의 강력한 주장을 매번 무력하게 만드는 비법은 자신의 주장을 더 강하게 내세우는 대신 상대방의 주장을 받쳐주는 사실을 반대 사실로 검증하기 때문이다.

### 대조를 통해 생각을 보여라. 빛의 위치는 주위가 어두울수록 분명해진다.

우리는 평소 서로 다른 주장을 듣다 보면, 누구의 주장이 옳은지 혼돈을 겪는다. 그러나 손석희의 말을 듣고 있으면 “문제의 답이 이것이다”라고 말하지 않는데, 명료하게 판단할 수 있게 된다. 여기에는 서로의 차이를 대조시켜, 상대방의 오류를 인식시키는 손석희 특유의 화법이 있다.

이 책에서 거론되는 손석희는 몇 마디 질문으로 부드러우면서도 명쾌하게, 상대방 생각의 오류를 정중하고 정확하게 지적해 상대방을 압도하는 사람이다. 그가 말하는 법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에게 읽어보기를 추천한다. 



# 눈에 관한 두 편의 소설과 두 편의 영화

눈이 내리는 날이면 하얗게 변해버린 세상에 아이처럼 좋아하던 것도 잠시, 출근길 걱정, 퇴근길 걱정을 하는 우리에게 눈은 불편함이 되어 버린 지 오래다. 이런 우리의 메말라버린 감수성을 되찾고자, 눈에 관한 두 편의 소설과 두 편의 영화를 소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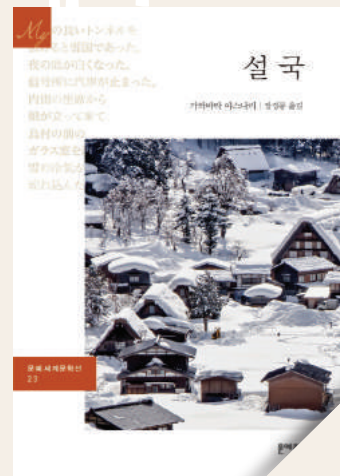
## 소설

“국경의 긴 터널을 빠져나오자, 눈의 고장이었다.  
밤의 밑바닥이 하얗졌다.”

### 설국 | 가와바타 야스나리

눈을 묘사하는 감각적인 문체가 예사롭지 않다. 눈 덮인 시골 마을의 모습을 아름다운 문체로 극도로 끌어올렸다고 평가받는 가와바타 야스나리의 『설국』. 이 책을 읽다 보면 어느새 눈의 고장에 와있는 듯 한 느낌을 준다.

눈 내린 시골 마을을 배경으로 기생 여인의 순수한 사랑을 그린 작품이다. 작가는 이 작품으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했다.



“외딴 두메마을 길 끊어 놓을 듯 은하수가  
핑핑 쏟아져 날아오듯 덤벼드는 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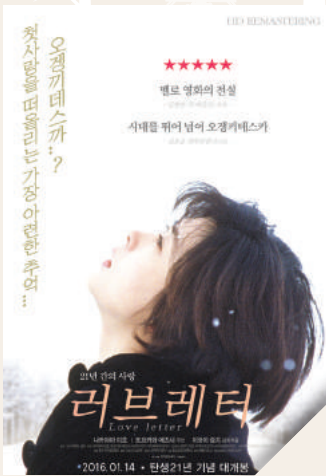
### 대설주의보 | 윤대녕

소설 제목처럼 대설주의보를 모티브로 삼아 고립된 상황에 놓인 주인공의 삶과 심리를 풀어낸 소설이다. 특히, 대설주의보로 고립된 주인공의 심리적 상황을 설경으로 묘사하여 눈의 아름다움과 공포심을 동시에 살려낸다.

헤어진 연인을 12년 만에 다시 재회하는 모습을 대설주의보와 맞물려 비유하는데 20분이면 갈 거리를 두 시간이나 걸리게 만들었다고 설명한다. 눈에 대한 섬세하면서도 시적인 묘사, 밀도 있는 스토리는 소설을 읽는 내내 대설주의보라도 내린 것처럼 꿈쩍할 수 없게 만든다.







## “오격끼데스까?”

러브레터(1995) | 이와이 순지

하얀 눈밭에서 “오격끼데스까?”를 외치는 여인의 모습. 영화를 보지 않은 사람이라도 이 한 장면은 알고 있을 영화 <러브레터>다. 홋카이도의 작은 도시의 설경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영상미도 좋지만, 감정선을 따라 진행되는 스토리도 명작이라고 평가된다. 첫사랑을 상징하는 순수하고 깨끗한 눈의 배경과 아련한 러브 스토리는 메마른 감성을 적시기에 충분하다.



## 흰 눈으로 뒤덮인 스웨덴의 소년, 소녀

렛미인(2008) | 토마스 알프레드슨

12살 소년과 뱀파이어 소녀의 사랑 이야기를 그린 이 작품은 끝없이 펼쳐진 눈으로 뒤덮인 스웨덴 스톡홀름을 배경으로 펼쳐진다. 눈처럼 새하얀 소년 오스칼의 순백의 사랑과 뱀파이어인 소녀의 붉은 피는 눈과 대조되어 더 차갑게 느껴진다. 원작 소설 『렛미인』을 바탕으로 제작된 이 영화는 스웨덴 영화로는 이례적으로 전 세계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어 냈다. 화면 가득 펼쳐지는 끝없는 눈과 영화의 몽환적인 색감, 차갑고도 신비로운 연출은 아름다운 뱀파이어 동화라 불릴 만큼 아름다운 공포와 슬픈 로맨스를 잘 표현했다.

# 계절감: 겨울이 머무는 속도

계절은 시간의 속도를 담아낸다. 예를 들면, 지금 창밖에 쏟아지는 눈처럼. 나는 투명한 창 너머의 눈을 바라본다. 눈이 내리는 소리라던가 떨어지는 눈송이의 간격 그리고 관통하는 바람의 리듬감이 주변을 감싼다. 시간이다. 계절에서 계절로 바뀌는 것은 당신과 나 사이에 놓여있는 거리를 채우는 보이지 않는 유속이다.

차곡차곡 쌓이는 눈을 보며 나는 이렇게 당신을 생각한다. 어쩌면 당신이 아니라 당신과 내가 한 계절에 놓여있던 그때를 기억 낮은 곳으로 불러오는 것일지도 모르겠다. 이불을 끌어당기며 당신이 나직하게 말했다.



이옥수  
독립잡지 트럼폴린 편집장



“크리스마스가 여름인 나라에 살고 싶어요.”

왜냐는 나의 물음에

“따뜻함이 필요해요, 나에겐.”

라고 답했다. 창 너머로 눈발이 휘날렸고, 곳곳에는 아직 치우지 않은 크리스마스트리기가 있던 1월 초였다. 당신의 잔머리를 귀 뒤로 넘겨주며 말했다.

“같이 있으면 충분히 따뜻하지 않나요?”

당신이 졸린 목소리로 대답했다.

“함께해서 따뜻한 것과 혼자서도 춥지 않은 것은 전혀 다른 의미예요.”

그리고 그해 봄이 시작되기 전 당신은 눈이 내린 적이 없는 나라로 떠났다. 떠난 것인지 달아난 것인지 알 수 없었다. 그리고 이 겨울이 지나고 다시 봄이 올 것을 알고 있는 나는 당신의 계절이 궁금해진다. 여름뿐인 곳에서 당신은 정말 춥지 않은 계절을 보내고 있는지에 대해서.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해?”



그리고 나는 몇 번의 계절을 건너며 당신을 사랑했다 그리워했다 원망했고 다시 긴 겨울을 지내며 눈이 모두 녹기 전 당신이 아닌 그녀, 윤을 만났다. 윤을 계절에 비유한다면 봄을 닮았다. 아주 짧지만 모두가 기다리는 그 따뜻한 봄. 그녀의 뺨은 꽃잎으로 물들인 양 복숭아빛이었고, 작은 손가락으로 우쿨렐레를 연주할 때면 언제까지고 봄이 계속될 것만 같은 착각을 하게 만들었다. 봄이 사람으로 태어난다면 그녀 같을까 싶을 정도로.

하지만 내가 당신을 잊었거나 당신이 내게서 잊힌 것은 아니었다. 함께 하는 시간은 늘 봄과 같았지만 이따금 당신이 생경한 느낌으로 불어왔다. 지금처럼.

“아니, 그냥.”

내 대답에 윤이 조용히 내 손을 그려줘었다. 그녀의 손바닥이 닿은 내 손등에 그녀의 체온이 느리게 옮겨왔다. 나는 손을 돌려 그녀의 손과 깍지를 끼었다.

“지금 나오는 곡 좋지? 차이코프스키의 호두까기 인형에 나오는 눈결정의 왈츠야.”

라며 짧게 말을 이은 윤은 음악을 더 감상하겠다는 듯 눈을 감았다. 눈을 감은 윤의 어깨너머로 펼쳐진 새하얀 도시에 눈송이들이 정말 왈츠를 추듯 내리고 있었다. 언제쯤 눈이 그칠까. 그리고 저 눈이 모두 녹으면 봄이 오는 걸까.

언젠가 읽었던 나카야 우키치로의 『눈(雪)』이 생각났다. 일본 삿포로와 다카치다케에서 매년 눈의 결정을 촬영해 3,000여 장의 사진을 모은 그는 눈을 하늘에서 보낸 편지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며칠째 하늘에서 수천 통의 편지가 쏟아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편지의 발신인은 이상하게도 눈이 닿은 적 없는 땅에 살고 있는 당신인 것만 같았다. 당신의 이름만 있을 뿐 주소는 알 수 없는 그곳.

기온이 낮은 1만 미터 상공에서 생긴 눈의 최초 상태인 빙정 그리고 그 아주 작은 결정이 제각기 다른 형태로 변하여 서로 다른 포즈로 떨어지는 이 긴 겨울, 나는 이상하게도 그 편지에 답장을 쓰고 싶어졌다. 수신인에 당신의 이름을 쓰는 것만으로 나의 편지는 크리스마스가 여름인 그곳에 닿을 수 있을까.

옆에서 눈을 감고 있는 윤을 바라보았다. 말없이 그녀를 꼭 끌어안았다. 봄 같은 그녀를 빈틈없이 안고 있으면 내 안에 부는 이 긴 겨울바람이 저 멀리로 물러나고 어디쯤엔가 꽃이 피지 않을까. 겨울이 세상에 마음대로 내려놓고 가는 것은 저 하늘 높이에 존재했던 눈이 아니라 머리 위로 지나는 길고 긴 그리움의 시간일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 시간을 다시 돌고 돈다. 하나의 계절이 우리에게 머무는 시간은 상대적이다. 오래된 나의 겨울이 여전히 나에게 머물고 있는 지금처럼. ❄️

# 사진으로 보는 기상청 소식



## 2017년 시무식(1월 2일)

기상청은 새해를 맞아 공직자로서 새로운 다짐을 하고, 새해 정책 방향을 공유하는 2017년 시무식을 가졌다. 시무식에서는 공무원헌장 낭독, 우수공무원과 모범공무원 포상, 신년사를 발표했다.



## 날씨꿈나무 현장 체험 교실, 공감 만족 프로그램 운영(1월 6일)

광주지방기상청은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실천문화 확산을 위해 지역 초등학생 40여 명을 대상으로 '날씨꿈나무 현장 체험 교실'을 운영했다. 시설 견학과 체험학습 등 실습 위주로 구성된 프로그램으로 기상과학 및 기후변화 이해확산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 기상청장, 국립현충원 참배(1월 3일)

고윤화 청장과 간부들은 국립 현충원을 찾아 현충탑에 헌화하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넋을 기렸다. 2017년 기상청 정책 목표 아래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 기상청, 2017년 업무계획 발표(1월 12일)

기상청은 '전문역량과 미래과학기술의 접목을 통한 서비스 향상'이라는 정책목표를 기반으로 2017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올해는 지진 분야의 업무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며 전문역량 및 미래과학기술을 접목하는 기상서비스를 중심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 Photo News



## 기상청 조직개편, 임명장 수여식(1월 2일, 16일)

기상청은 전문역량을 향상하기 위해 조직개편을 추진하였다. 이를 통해 대규모 인사이동이 있었으며, 1월 2일, 16일 임명장 수여식이 진행되었다.



## 기상청 청장·차장, 사회복지시설 방문(1월 19일, 24일)

고윤화 기상청장과 남재철 기상청 차장은 설 명절을 맞이하여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고,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하여 인근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하여 위로 및 직원들이 모금한 성금을 전달하였다.



## 한파 속 한강 첫 결빙(1월 26일)

계속된 한파로 인해 1월 26일 아침, 이번 겨울 들어 처음으로 한강 결빙이 관측되었다. 이번 한강 결빙은 작년보다 5일 늦고, 평년보다 13일 늦게 나타났다.





##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머리 좀 식히면 어떨까요? 「하늘사랑」도 읽고, 상품도 타고, 스트레스도 풀고~♪

### 퀴즈 참여 방법

퀴즈 정답은 2월 25일까지 전자우편(kmanews@korea.kr)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름 · 주소 · 우편번호 · 전화번호를 꼭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 원고 기고 방법

여러분의 원고를 기다립니다. 원고 분량은 200자 원고지 15매 정도(아래한글 10point, 줄 간격 160%, A4용지 1장 반 정도)이고, 매월 20일까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글과 관련된 사진이 있으면 더욱 좋습니다. 채택된 외부기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상품이나 원고료를 드립니다.

## Q&A

### 사막화는 왜 일어나나



지구는 '물의 별'이라고 불릴 만큼 곳곳에 강과 바다가 많이 있다. 그런데 이 물의 별에도 사막은 존재한다. 사막은 강수량이 적은 데 반해 증발량이 많아 초목이 거의 자랄 수 없는 불모의 토지를 말한다. 전 육지 면적의 10분의 1 이상이나 되며, 극히 광범위한 위도에 걸쳐 분포한다. 그런데 현재 수많은 나라에서 사막화가 진행 중이며, 매년 농지와 초지(草地)가 600만km<sup>2</sup>씩 없어진다고 한다. 도대체 사막화 현상은 왜 일어나는 걸까?

사막화는 자연적 요인과 인위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일어난다. 엘니뇨 등으로 인한 기후변화, 또 생물의 생태학적 변화의 영향도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사람들 스스로 사막화를 만들어 왔다는 것이다. 인구가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농사를 지어야 할 땅이 필요했고, 연료를 얻기 위한 무분별한 벌목과 산업화에 따른 지나친 도시 개발로 인해 삼림은 점점 황폐해지게 된 것이다.

삼림이 파괴되면 적은 비에도 흙이 쓸려 내려가 홍수 피해가 더욱 커진다. 땅이 갈수록 황폐화되어 식물 및 농작물도 잘 자라지 못하고, 동식물 서식지가 줄어들어 자연 생태계가 파괴된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지구 상에 삼림이 줄면서 점차 산소가 부족해져 사람이나 동물들이 살기에 어려운 환경이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무를 심기, 산불예방, 토양 오염을 막기 위해 화학비료도 되도록 쓰지 말아야 한다. 또한, 산업체로부터 나오는 각종 오염물질도 대폭 줄이도록 노력해야 한다.

## QUIZ

### 지난달 퀴즈 정답

### 지난달 퀴즈 정답자

1. 범위가 가장 적은 달은 몇 월일까?

- ① 12월    ② 2월    ③ 5월    ④ 10월

1. ③ 붉은달

2. ② 낙뢰

강미애(시흥) 박정숙(대전)

김휘곤(울산) 권선경(의정부)

최태영(성남)

2. 지진, 지진해일, 화산에 대한 지식을 쌓고 홍보활동을 하는 기상청 청소년 동아리 이름은 무엇일까?

- ① 지진스토리    ② 지진 신문고    ③ 땅울림    ④ 안전디딤돌

# 인사발령

내용	일자	소속	직급(직위)	성명			
전보	'17. 1. 1.	기상기후인재개발원	부이사관(원장)	김금란			
파견 (공로 연수)	'17. 1. 1.	기상청	기술서기관	이정석			
			서기관	이종하			
			기술서기관	조진대			
			기상사무관	심철우			
			기상사무관	이기봉			
			기상사무관	심성보			
전보	'17. 1. 1.	예보국	총괄예보관	허택산			
			예보분석팀	박영연			
			기상서비스진흥국	기술서기관(과장)	원재광		
		지진화산센터	지진화산정책과	기술서기관(과장)	유상진		
			지진정보기술팀	기술서기관(팀장)	연혁진		
		수도권기상청	관측과	기술서기관(과장)	남효원		
		대구기상지청	국가기상위성센터	기술서기관(과장)	장현식		
				기술서기관(과장)	장근일		
				기술서기관(과장)	김용상		
		기상기후인재개발원	교육기획과	기술서기관(과장)	임덕빈		
			인재개발과	기술서기관(과장)	문재인		
		파견	'17. 1. 1.	국민안전처	중앙재난안전상황실	기술서기관	신연성
		퇴직	'17. 1. 16.	수도권기상청	중앙재난안전상황실	기술서기관	강경운
				부산지방기상청	청장	영진관	
		승진	'17. 1. 16.	기상서비스진흥국	국장	임병수	
수도권기상청	청장			장동연			
전보	'17. 1. 16.	기상청	일반직고위공무원	전준모			
			예보국	일반직고위공무원(국장)	신도식		
		관측기반국	일반직고위공무원(국장)	정준석			
			기후과학국	일반직고위공무원(국장)	유희동		
		지진화산센터	일반직고위공무원(센터장)	김성근			
			부산지방기상청	일반직고위공무원(청장)	이미선		
		기획조정관실	기획재정담당관실	부이사관(담당관)	김남욱		
			기후정책과	기술서기관(과장)	나득균		
		지진화산센터	지진화산감시과	기술서기관(과장)	김현경		
			지진화산연구과	기술서기관(과장)	유용규		
		관측기반국	계측기술과	기상사무관	이덕기		
			관측정책과	기상사무관	김병준		
		지진화산센터	지진화산정책과	기상연구관	임병철		
			지진화산연구과	기상연구관	김상백		
		지진화산센터	지진화산감시과	방송통신사무관	서동일		
			지진정보기술팀	기상사무관	전영수		
		부산지방기상청	관측과	기상사무관	박순천		
			관측과	기상사무관	김현식		
		전보	'17. 1. 23.	감사담당관실	서기관	박정수	
		파견	'17. 1. 23.	기획재정부	예산실	행정사무관	김남효
퇴직	'17. 1. 31.	관측기반국	정보통신기술과	방송통신사무관	이욱기		
		수치모델링센터	수치모델링센터	일반직고위공무원(센터장)	이동규		
전보	'17. 2. 1.	기상청	기술서기관	부이사관	손승희		
			기술서기관	기술서기관	김영화		
			기술서기관	기술서기관(과장)	김영동		
		기상레이더센터	기술서기관(과장)	부이사관(과장)	김오동		
			기술서기관(과장)	부이사관(과장)	권오웅		
		기획조정관실	기획재정담당관실	기술서기관	선지훈		
			운영지원과	서기관	임하권		
		관측기반국	관측정책과	기술서기관	조남산		
			정보통신기술과	기술서기관	남영만		
		기상서비스진흥국	국가기후데이터센터	기술서기관	김동진		
			예보국	예보기술과	기상사무관	이예숙	
		기후과학국	기후예측과	기상사무관	조구희		
			기후변화감시과	기상사무관	노경숙		
		지진화산센터	지진화산정책과	기상사무관	김복희		
			지진화산감시과	기상사무관	박종신		
국립기상과학원	기후연구과	기상연구관	오하영				
	수치모델링센터	수치자료응용과	기상연구관	이조한			
부산지방기상청	예보과	기상사무관	안광득				
	대전지방기상청	기후서비스과	방송통신사무관	박근덕			
제주지방기상청	기후예측과	행정사무관(과장)	전덕수				
	예보과	기상사무관	김경훈				
전주기상지청	관측예보과	기상사무관	이은주				
	(영향예보팀(TF) 파견)	관측예보과	기상사무관	김해준			
전보	'17. 2. 1.	대변인실	기획조정관실	청초행정담당관실	기술서기관(담당관)	정현숙	
			예보국	총괄예보관	기술서기관	함동주	
		기후과학국	예보기술과	기술서기관(과장)	인희진		
			기후예측과	기술서기관(과장)	김동준		

내용	일자	소속	직급(직위)	성명	
전보	'17. 2. 1.	기후과학국	기후변화감시과	기술서기관(과장)	오미림
			이상기후팀	기술서기관(팀장)	박종서
		기상서비스진흥국	기상융합서비스과	기술서기관(과장)	신동현
			수치자료응용과	기상연구관(과장)	주상원
		수치모델링센터	미래수치기술팀	기술서기관(팀장)	김진철
			수치모델개발과	기상연구관(과장)	김윤재
		대구기상지청	관측예보과	기술서기관(과장)	김희수
			광주지방기상청	기후서비스과	기술서기관(과장)
		강원지방기상청	예보과	기술서기관(과장)	정광모
			춘천기상대	기술서기관(대장)	홍성대
		제주지방기상청	기후서비스과	기술서기관(과장)	박영원
			기상레이더센터	레이더분석과	기술서기관(과장)
		국립기상과학원	관측예보연구과	기상연구관(과장)	임은하
			기후연구과	기상연구관(과장)	변영화
		항공기상청	정보기술과	기술서기관(과장)	이명희
			대변인실	기상사무관	한승은
		감사담당관실	행정사무관	행정부서	이현숙
			청초행정담당관실	기상사무관	김희철
		연구개발담당관실	연구개발담당관실	기상연구관	방소영
			기획재정담당관실	행정부서	강광원
기후조정관실	기후조정담당관실	기상사무관	김재호		
	기후조정담당관실	기상사무관	김강하		
국가기후데이터센터	국기태풍센터	기상연구관	차은정		
	예보기술과(인재개발과 파견)	기상사무관	박경진		
예보국	예보분석팀	기상사무관	윤기환		
	예보정책과	행정부서	김정탁		
관측기반국	총괄예보관실	기상사무관	주영민		
	정보통신기술과	방송통신사무관	김진석		
기후과학국	기후변화감시과	기상사무관	김환승		
	이상기후팀	기상사무관	조경숙		
기상서비스진흥국	기후변화감시과	기상사무관	김정식		
	이상기후팀	기상사무관	오대석		
기상서비스진흥국	기상융합서비스과	기상사무관	임보영		
	국가기후데이터센터	기상사무관	홍기만		
기상기후인재개발원	기상융합서비스과	기상사무관	원덕진		
	교육기획과	기상사무관	황정철		
국립기상과학원	기상융합서비스과	기상사무관	김지현		
	기후변화감시과	방송통신사무관	이봉주		
기상레이더센터	레이더분석과	기상사무관	정선애		
	레이더운영과	방송통신사무관	정성훈		
국립기상과학원	관측예보연구과	기상연구관	이창재		
	관측예보연구과(영향예보TF 파견 중)	기상연구관	공종호		
수치모델링센터	미래수치기술팀	기상연구관	신지우		
	수치자료응용과	기상연구관	김정희		
수치모델링센터	수치자료응용과	기상연구관	김종성		
	수치모델개발과	기상연구관	정성화		
수치모델링센터	수치자료응용과	기상연구관	최병산		
	수치자료응용과	기상연구관	하종철		
수도권기상청	예보과	기상사무관	김승범		
	기후예측과	행정부서(과장)	이철규		
광주지방기상청	관측과	기상사무관	부경은		
	관측과	기상사무관	강현석		
강원지방기상청	목포기상대	기상사무관(대장)	이조한		
	기후예측과	기상사무관(과장)	강기룡		
대전지방기상청	예보과	기상사무관	변재영		
	관측과	기상사무관(과장)	조경모		
제주지방기상청	관측과	방송통신사무관(과장)	김정훈		
	기후서비스과	기상사무관	백희정		
대구기상지청	기후서비스과	기상사무관	이승우		
	기후서비스과	기상사무관	박세영		
기후과학국	기후서비스과	기상사무관	신현철		
	기후예측과	기상사무관	이홍희		
기후과학국	기후예측과	기상사무관	최준태		
	기후예측과	기상사무관	김영아		
수도권기상청	예보과	기상사무관	임교순		
	기후예측과	행정부서(과장)	별은희		
관주지방기상청	관측과	기상사무관	송진욱		
	관측과	기상사무관	우종태		
강원지방기상청	기후예측과	기상사무관(과장)	김희관		
	기후예측과	기상사무관(과장)	김정식		
대전지방기상청	관측과	기상사무관(과장)	서광신		
	관측과	방송통신사무관(과장)	이용태		
제주지방기상청	관측과	기상사무관	임재철		
	기후서비스과	기상사무관	김하진		
대구기상지청	기후서비스과	방송통신사무관	변건영		
	기후서비스과	기상사무관	김미옥		
복직	'17. 2. 1.	기상청	기상청	기상청	
휴직	'17. 2. 1.	기상청	기상청	기상청	



사진, 글: 조아라

## 골목의 계절

무심코 걷다 돌아본 골목은  
계절이 가장 오래 머물다 가는 곳

아직 녹지 않은 눈이  
가로등 불빛에 의지하고 있는 곳

쌓여있는 눈더미 속에  
지난 가을 바람에 쓸려온  
낙엽이 잠들어 있는 곳

좁다란 틈새마다  
봄을 기다리는 이름모를  
풀들이 숨죽여 있는 곳

당신의 발소리로  
가장 먼저 계절을 듣는 곳

Passion. Connected.  
하나된 열정

이제는 평창입니다

## Time for PyeongChang 2018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2018.2.9~2.25  
2018 평창 동계패럴림픽대회 2018.3.9~3.18



수호랑  
Soohorang



반다비  
Bandabi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 입장권 판매 안내

온라인 추첨식 판매 2017.02.09~04.23  
온라인 일반 판매 2017.09.05~대회종료  
<http://tickets.pyeongchang2018.com>





구름·바람·햇살과  
그 찬란함!



# 제34회 기상기후사진 공모전

**작품주제** 구름·바람·햇살과 그 찬란함!

**공모기간** 2017. 2. 3(금) ~ 2. 28(화)

**공모대상**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1인 2작품 이내]

**공모내용** 기상현상의 사실성, 희귀성, 작품성, 참신성, 학술적 가치, 특이한 기상현상이나 영구보존 가치, 기상재해에 대한 경각심, 기상홍보 효과와 같은 내용을 담은 작품

**작품규격** 2200 X 1500 Pixel 이상, 파일크기 10MB 이내의 jpg 파일  
(\* 단, 컴퓨터 그래픽 및 합성 불가하며, 수상작의 경우 원본 제출 필요)

**문의처** 기상기후사진 공모전 운영사무국 [ 031-698-4053~4 ]  
또는 공모전 홈페이지 [ <http://kmaphoto.kr> ] 참조

**접수처** 공모전 홈페이지 [ <http://kmaphoto.kr> ] 접수

**입상발표** 2017. 3. 10(금) 10:00 기상청 홈페이지 공지

**시상내용** 각 부문 상장 및 총 1,250만원 상당의 상금

구분	작품수	상훈	상금
대상	1점	환경부장관상	300만원
금상	1점		200만원
은상	1점	기상청장상	100만원
동상	2점		50만원
입선	25점	상장 없음	10만원

\*특별 공모(상장 없는 입상/상금 각 30만원)

- 스토리 사진: 5점(특별한 이야기나 사연이 담긴 기상사진)
- 계절 사진: 5점(계절을 나타내는 대표적 기상사진)

주최 기상청    후원 환경부    국립과천과학관

\* 최종 입상된 40점의 작품에 대한 모든 권리(저작권 일체 및 2차 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의 작성권 등)는 기상청에 귀속(저작권법 적용) 됩니다.